가장 완벽한 수행법은 관음의 이근원통

〈耳根圓通〉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㊱ 능엄경(楞嚴經) 3

아난은 참 행복한 수행자였다. 〈능엄경〉을 보면서 부처님이 정말 아난을 아끼고 사랑하신 모습이 그려져 맘 한 편에 이런 부러움이 생겼다. 항상 법문만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았던 탓에 유혹에 빠진 아난을 구하시고 그를 가르쳐 확고한 수행인을 만들어 가실 때, 아난을 유혹했던 마등가녀의 딸에게도 평등하게 그 길을 일러주고 출가시키는 모습에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진다. 모든 경전은 '서분', '정종분(본론)', '유통분'의 구조를 갖추는데 〈능엄경〉 역시 정종분에서 그 수행과정에 따라 '견도분', '수도분', '증과분', '결경분', '조도분'의 5단계가 있다. 아난이 사마타, 삼마제, 선나의 삼관법문에 대해 질문하자 '견도분'에서 7처증심을 통해 사마타를 설하고 '수도분'에서는 삼마제로 도를 닦는 실체적인 스토리인 25원통수행이 등장한다.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해야 공덕을 성취하는 '능엄주'가 등장한다. '증과분'은 선나를 설명하며 법무중생들이 실천수행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욕심과 습기가 말라버린 본성의 자리인 건혜지로부터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사가행, 십지, 등각 구경위인 무상도까지의 57단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화엄경〉이라 불린다. '결경분'에서는 〈능엄경〉을 5가지로 알려준다. '조도분'은 도를 돕는 내용으로 말세 참선하는 이가 혹여 길을 잘못 들까 염려하여 미리 참선자의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50가지 마장장애를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십변마장이다. '유통분'에서는 〈능엄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과 부촉을 한다.

아난에게 참마음을 찾기 위한 수행을 사마타, 삼마제, 선나로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 방법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모든 것에 통달했다는 원통(圓通)을 이룬 25명의 제자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은 나의 법 가운데서 최고를 이루었다. 너희가 처음 발심하여 18계를 깨달을 때, 어떤 근(根)과 계(界)가 원통할 수 있었으며 어떤 방편법문으로 삼마지에 들어가는가."

아야교진여는 녹야원의 설법(聲)을 듣고 가장 쉽고 빠르게(圓通)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한다. 우파니사타는 모습의 부정(色)을 보고 , 향엄동자는 향기(香)를 통해서, 약왕과 약상, 오백범천은 맛(味)의 인연으로, 발타바라보살은 감촉(觸)의 인연으로, 마하가섭과 자금광 비구니는 법(法)의 인연으로 원통을 성취했다고 말한다. 또 아나율, 주리반특가, 교범바제, 수보리, 사리불, 부루나, 우바리, 목건련, 보현보살과 관음보살들이 모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원통을 이룬 때를 회상하며 말씀드린다. 부처님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문수에게 묻는다.

"문수여, 너는 이들의 25가지 원통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리 아난에게 딱 맞는 교육법이 되겠는가. 또 미래의 모든 이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권장할 방법이 있느냐?"

"네. 부처님이시여. 오늘 들은 원통의 법문을 살펴보니 모두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 중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의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근원통(耳根圓通)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으로 염불선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염불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염불소리와 모든 소리에 집중(觀)하고, 이어 '염불소리를 듣는 이를 돌리는(反聞聞性)' 경지에 들어야 한다. 반문문성이라는 것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언어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이다. 회광반조의 의미도 있다. 단순히 염불만 하는 염불선의 경지를 뛰어넘는 오도의 경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원통하는 방법으로는 집중부터 최고라는 문수의 말이 맞게 느껴진다. 고려 때 이자현은 청평사에 이근원통의 수행처를 자연 속에 만들어 놓고 수행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관세음보살은 32응신으로 중생들의 모든 삶에 보호자가 되어 몸을 나투어 언제든지 우리들 곁으로 달려오시니 그 분의 가르침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쉽게 성취할 수 있다는 문수의 판단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관음을 모신 전각을 '원통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래 전 옛날 관세음부처님을 만나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 때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문사수(聞思修) 삼혜로 삼마지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반야사 주지〉

모두 생각한 기도… 감쪽같이 사라진 쥐와 해충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㉟ 부처님께 정성껏 바친 기도

선지식에게 수도장에 쥐약을 놓지 않고 쥐를 소탕하는 방법을 여쭈었을 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째서 쥐가 그렇게 들끓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쥐의 마음, 즉 빈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쥐가 싫다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 너희들 마음속에 쥐의 마음인 거지 마음, 거저먹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 거지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쥐를 내쫓으려 해도 목장에서 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소개되었을 때 불자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었겠지만, 대구의 어느 절 주지 스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너무도 신선했고 깊은 공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신 자신의 난제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님이 계시는 절은 대나무 밭이 있는 야산과 바로 인접해 있기에 절 곳곳에 해충들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중에 독충인 지네가 많아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새벽마다 신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신성한 예불시간에도 천정에서 지네가 떨어지니, 법당은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지네에 물리다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이 난제를 부처님께 바치라는 방법을 듣자마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해충에 대한 두려운 생각, 위험하다는 생각 등을 부처님께 정성껏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을 바친다고 정말 지네가 사라질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바쳤지만, 웬일인지 바치면 바칠수록 하루하루 신뢰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 지네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저 놀랍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새 다시 슬금슬금 지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이 주지스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충이 나타나는 것을 내 마음속의 허물인 줄 알고 정성껏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타나니, 부처님께 바치는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아마도 이만하면 되었다는 분별심을 냈던가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 주변의 다른 일반 가정집에서도 해충 때문에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웃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재차 바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기도법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모든 도량에 해충이 사라져 언제나 밝고 쾌적한 곳이 되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원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즉 내 법당만 깨끗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이 되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 모든 곳에 해충이 사라져 부처님 시봉 잘 하기를 진심으로 발원하였더니, 다시 감쪽같이 법당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집에서까지도 해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참으로 깨달은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도에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부처님 마음이 되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늘 씩씩하고 든든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무비공심(無鼻空心) '이 뭣고'

경허선사의 '무비공심'에 대한 유래는 이렇다. 당시 동은이라는 시자승(侍者僧)의 부친 이처사는 여러 해 동안 수행하여 스스로 깨침을 얻었는데, 어느 날 그 은사인 도일 스님이 이처사를 만나 차담을 하게 되었다.

이처사가 말하길 "중(僧)이 중 노릇 잘못하면 마침내 소(牛)가 됩니다"라고 하니, 도일 스님이 이 말에 "중이 되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시주(施主)만 받으면, 죽어서 반드시 소가 되어 그 시주 은혜를 갚게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이 처사는 꾸짖으며 말했다.

"어찌 사문의 대답이 그렇게 꽉 막혀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에, 여아시위우측위무천비공처(如我是爲牛側爲無穿鼻孔處)라, "어찌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르지 않습니까?"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동학사로 돌아가 참선 수행 중인 경허선사께 이처사의 말을 전해드렸다.

그러자 언하(言下)에 대오(大悟)하시고, 유월연암산하로(六月燕巖山下路) 야인무사태평가(野人無事太平歌)이라 말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홀연이 문득 소(牛)가 되어도 멍에 매는 콧구멍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에 삼천세계가 내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 할 일 없는 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라고 하시며 오도송을 남기셨다.

우리의 참성품은 허공과 같아서 거기에는 생사가 없으며, 동정간에 티끌만한 법도 붙을 수가 없는 우리의 본 고향이다.

> "홀연이 문득 소(牛)가 되어도 멍에 매는 콧구멍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에 삼천세계가 내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 할 일 없는 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허공 어디에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멍에를 뚫을 구멍이 있겠는가? 포대화상송에 아유일포대(我有一布袋) 허공무가애(虛空無가碍) 전개편시방(展開遍時方) 입시관자재(入時觀自在)라.

즉 "나에게 한 포대가 있으니 허공에 걸림이 없으며, 열어 펴면 온 시방에 두루하고 들일 때에도 자유자재하도다"라고 하였다.

전강 선사께서는 정도(正道)로서 경허선사 오도송의 법루(法漏)를 잡아서 허(虛)를 찔렀다. 바로 '무사태평가(無事太平歌)'라는 것이 법의 때(법루)인 것이다. "돈각삼천시아가"라 깨달은 각견(覺見), '콧구멍 없는 소'의 색견(色見), 이런 '법의 때'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활구를 법답게 하는 것이다.

전강 스님은 당시 만공 스님께 이렇게 말씀 드렸다.

'유월연암산하로(六月燕巖山下路)'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 구절 '야인무사태평가(野人無事太平歌)'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붙이겠다고 말했다.

"여여 여여로 상사뒤야"하시며 태평가를 살아 움직이는 활구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농부들이 논을 메며 부르는 가락의 후렴이다. 다시 만공 스님이 물으셨다. "그 무슨 뜻인가?" 그러자 전강 스님은 다시 "여여 여여로 상사뒤야"를 반복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것을 보고 만공 스님께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놀리는 것일세, 참으로 손자가 할아버지를 놀리는 것일세"라고 하시며 인가(認可) 하셨다.

심월고원(心月孤圓) 광탄만상(光呑萬象) 광경구망(光境俱忘) 부시하물(復是何物)이라. 즉 이 말은 "마음달이 뚜렷이 밝아서 그 빛이 만상을 삼켜버렸네, 빛과 경계를 모두 놓아 버리니 다시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란 뜻이다. '이 뭣고'라고 하시며 열반송을 남겨셨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